

“풍부하고 다양한 대학 문화로 경희의 역사를 써 갑시다.”

오 늘의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고백 성서를 묻는다면,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첫손가락에 꼽힐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등이 뒤를 잇지 않을까?

최근 들어 세계화나 정보화 등에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대 표한다는 말들이 난무하지만 나 자신만해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릴 방도가 없다. 그리고 꼬박 4년을 배우는 전공이나 그 이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어학능력이나 정보수집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부담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학의 문제는 최소한 여기서 출발한다.

첫째, 미래에 대한 안목과 능력이 못 미치는 상황에서 당연히 불안감을 짊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대학생들의 혼란은 어쩌면 예정된 순서일 수 밖에 없다.

둘째, 현재의 대학은 교육과 문화 전반에 시커먼 바락을 틀어박고 바짝 매달려 버렸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다’에서 ‘대학 문화의 총체적 위기이다.’ 까지 모두가 한마디씩 거드는 상황에서 섣된 대안

기호 1번



정 김길구 (전자 3)



부 김상관 (경영 3)

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뿐이다. 이 속에서 대학 공동체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나 국내외 정치 상황에 과도한 반응은 적어도 지금의 대학 현실 자체를 왜곡하는 태도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번 총학생선거를 준비해 온 우리들은 97년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를 직접 꾸려나간다는 하더라도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연일 불면의 밤과 싸워야 하고 지금까지 충실하게 임해 온 각자의 학업에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어느 누구라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학생회를 운영해 왔던 학우들에게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경희대학교는 풍부하고 다양한 대학문화를 하

루 속히 조성하고 지금 우리가 써 나가야 할 경희의 역사 또한 민족 전체의 역사만큼이나 시급히 대비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대학교육과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조건은 ‘변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 할 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 땅의 젊은이들이 또 다른 ‘고등학교 4년’을 보내고 나서는 일선 기업이 절실히 요구하는 ‘뛰는 인재, 창조적 인간’은 더 이상 한국 대학에서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며, 미래 역시 또 다른 오늘날로 곤두박질 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공약◇

1.학부중심의 대학
△부전공, 복수전공, 조기졸업의 활성화 △학생의 자율적

수원캠퍼스 29대 총학생회 지상유세

수원캠퍼스 97학년도 29대 총학생회 선거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치뤄진다.

현재 총학생회 후보자로는 기호 1번 정 : 이길구(전자 3) 부 : 김상관(경영 3)군과 기호 2번 정 : 이병언(건축 3) 부 : 김세훈(회계 4)군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오는 18일까지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우리신문사에서는 두 후보자의 출마의 변과 질의 응답의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학술활동 적극지원 △국제교류 협력체 신설 △전일교수 확보 △각 대학교시한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재택수업 활성화

2.문화중심의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다양화 △학생사회봉사 참여권장 △문화공간 확보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 △스포츠센터 조기 착공

3.지역중심의 대학
△지역연계, 산학연계 확대 △사회교육원의 역할 활성화

4.복지 및 후생
△종합강의동 건립 △우정원 조기 완공 △여직원 시설확충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스쿨버스 교체 및 대중교통 수단 확충 △사색의 광장 공간 활용 방안 △강의실내 기자재 확보 △숙제의 활성화

5.정보화사업
△멀티미디어센터 설립 △인터넷열람실 설치 △강의실내 통신포트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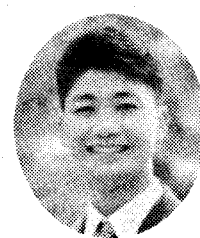
사 회가 각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었지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각박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21세기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에서도 ‘가치경영’이나 ‘정도경영’ 등의 기업이념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화두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할 새로운 가치관은 무엇인가? 일 것입니다.

96년 다 높아지는 시대정신의 요구앞에 우리의 발걸음은 작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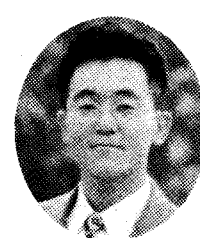
우리는 건강한 시대정신을 우리 학원에서부터 이루고자 ‘경희21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아직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또한 학생운동에서 학우들과 함께하지 못함으

현시대의 혼란 극복할 새로운 가치관은 ‘사람중심의 시대이념’

기호 2번



정 이병언 (건축 3)



부 김세훈 (회계 4)

로써 내년 대선에 눈이 먼 김영삼정권에 큰 탄압을 받았 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탄압이 거세어서가 아니라 학우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과 국민들에게 받은 질타였습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은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지만 아직 예전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97년은 학부제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학부제는 대학 본래의 이상적인 형태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보완, 교육여건 마련, 학부내 인간관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전통을 물려줄 자기과의 후배가 없어지는 현실적 문제에서 이를 해결할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도

와 틀로 이어지는 선후배관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전통과 역

사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97년의 이런 현실은 분명 하나의 큰 변화이자 혼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큰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도전의 기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경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이런 변화의 97년을 이끌어 가는 진정한 1만의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두가지의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공약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자주적 학생회의 풍부한 경험과 깊이있는 정책 대안, 거기에 1만학우의 참여와 지혜를 더한다면 우리는 97년 경희의 미래를 ‘희망’이라는 단어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약◇

-97년 건설과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

전도 점사 실시 △1학기내 교문 건설 △교양강의동 및 여학당의 97년 완공 △제2공학관 부지선정 97년 상반기 완료, 건설 안 함

-97년 교통과제
△교통문제 해결을 전담할 교통국 신설 △대중교통 수단

의 유치 △주차문제 해결

-그 밖의 복지 관련
△조형학부관 부지선정 97년 상반기 완료, 건설 안 함의 △관 통도로 건설과 노천대극장 건설 안 함의 △복지회관 내에 약국, 목욕탕 유치 △3호관 종합 운동장 건설 완공 △수강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신문 및 영어잡지 판매 확대 △장학금 2억 2천으로 장학금의 과별 수혜 폭 확대 △상반기 내 공중전화 10대 추가 △문서작성을 위한 정용 컴퓨터 마련 △등록금 3회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이삿짐센터 운영 △취업대책 마련

-영동문화제
△5월 수원시립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10월 영동지역 시민학생 문화한마당 개최 △인근 중등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경희와 함께 하는 젊은이의 한마당 추진 △용인, 신갈 및 수원 영동지구 중고생 대상의 여름캠프 개최

기호1번 정부와 한총련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지난 8·15 범민족대회로 인해 한총련을 비롯한 각 지역 총련 및 학생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는 견해와 이런 상황에서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피력한다면.

기호1번-8·15범민족대회에 맞추어 범민족적인 차원에서 민족 대단결이라는 구호로 한 마당을 이루는 취지는 찬성한다. 또한 이러한 행사에 젊은 열기의 대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세대에 모여 학생들이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없는 상태에서 소수의 지도 체제에 의해 그들의 강령이나 정책에 따라 행동하고 거리를 걸으며 그

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한총련이 구상한 처음 모임의 뜻은 좋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이 기만 하면 본래의 취지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문제를 거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학답을 요구한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내세운 좋은 취지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물론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학생들을 탄압한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비록 그들의 행동이 과격하고 정부의 시각에서 보기에도 결코려운 존재들이나 그들도 학생이고 이 나라의 국민이다. 정부도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사과해야 하지만 한총련 역시 학우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전국 대학생들에게 사과를 해야한다.

기호 2번-올해는 학생운동이 학우들과 함께 하지 못하

내년 대선에 눈이 먼 김영삼 정권에 큰 탄압을 받았 습니다. 올해 동아리연합회장과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저는 무엇보다 이런 점을 학우들 앞에서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탄압이 심해서가 아니라 학우들과 학우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과 국민들로 부터 받은 질타였습니다. 우리가 통곡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지만 아직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우들을 깊이 만나보면 우리 사회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주 민주 통일된 사회가 되어야 하고 대학이 그 지성과 양심의 책임 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탄압이 심하고 사회가 보수화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을 옳다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

는 대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학우들과 함께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주민주통일된 사회를 위해 지성과 양심을 다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한치의 흔들림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28대 총학생회를 평가 한다면

기호 1번-좀더 좋은 모습, 좀더 나은 모습을 이루어 나가려는 또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았나 한다. 요즘 학내에서 여러가지를 느끼지만 학우들의 모습의 변화가 역력하게 보이고 있다. 외형의 변화라기보다는 내형의 변화, 즉 생각의 변화가 커다란 벽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의 학생회에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또 걸음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학우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노력 등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 된다.

기호 2번-일단 우리가 28대 총학생회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린 마음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서관 앞 특별음악회처럼, 학교측이 주도적으로 준비한 행사를 학교발전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적극적으로 도왔던 총학생회 간부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2학기 경희대 축제 하나만 보더라도 준비가 부족했던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축전날인데 모르 고 있는 학우들, 학교도 안나오 는 학우들이 많은 것은 학우들을 탓하기 이전에 총학생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선전물과 과학장장들의 회의 속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경희대축전을 크게 한다는 사실이 학우들 속에서 회제가 되고 소문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학우들과 완전히 합의되지 못한

타성에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모습 기호2번

것입니다.

-내년부터 학부제가 전면 실시되면 학생들의 소속감이나 연대의식이 현재보다 더욱 희미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회의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기호 1번-학부제가 실시되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그 학부속에서 기존의 과나 그 학생회에서 소속감이나 연대의식을 갖게 될 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를 최소화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학생회의 나아갈 방향이다. 이를 위해 신입생이 입학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수님, 졸업생들의 초청으로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 하고 학부내에서 배우는 학과 별 학부별로 교과목이나 진로

에 관한 설명의 시간을 마련하여 학교에 들어왔을 때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또 교수, 학생, 교직원간의 3자 테이블을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침 및 시설 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제시토록 할 것이며, 학부특성, 단대특성, 단대특성을 살린 동아리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학부생과 학과생과의 연계감을 높이고 중앙동아리와의 연계를 통한 연구발표회, 세미나, 학술제 등의 연합행사 개최로 학교, 학부에 소속감, 연대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학부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과가 없어지고 학생활동이 어려워지는 측면에서 볼 때 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통을 물려줄 후배가 없는 것이고 후배들의 입장에서선 선후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호 2번-앞으로 2-4년간

은 과학생회, 학부학생회(각 전공이 섞인 학년 학생회와 전공의 중심이 되는 전공동아리로 구성)가 공존하게 됩니다. 이때 각 단위들이 연합기구 속에서 같이 의논하고 풀어나간다면 일차적인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와 틀로 저절로 이어지는 선후배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나가야 학부후배들은 기존의 과선배를 선후배로 느끼게 되고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희 사랑 공동체의 마음을 심어 주고, 복잡한 학부운영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대안있고 힘있는 학생회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공평섭 기자)

正道경영·초우량 LG



화학의 목표는 인간입니다

더 아름다운 인간의 삶. 더 질서는 나라. 화학의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화학강국이 미래강국

첨단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모든 산업의 핵심기술은 화학- 화학이 앞선 나라이니 미래의 새로운 강국이 됩니다. 우리나를 21세기 화학강국으로! LG화학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 이 오 유전공학 핵심기술을 응용하여 인간장성호르몬 제4세대 합성제 등 첨단화학신물개발
정보전자소재 고도의 기술융합 연구로 정보화학신물 개발하는 반도체 기초소재 등 개발
석유화학 석유화학 범용수지 및 자동차, 우주항공 분야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최첨단 고성능신소재 개발
정밀화학 무공해 농약, 생활용품 첨가제, 석유화학 중간체 등 고부가가치의 신물질, 신기술 개발
생활건강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제품 연구 개발

LG화학

LG화학·LG석유화학·LG일라이드스그닐·LG오일스코닝·LG MMA·(주)실트론